

KJT STUDIO

신들의 유산: 스토리

LEGACY OF GODS

KJT

2025-3-1

내용

| | |
|------------------------|---|
| 1. ACT1 그레인트힐 습격 | 2 |
| 2. ACT2 첫번째 유산..... | 4 |

1. ACT1 그레인트힐 습격



저녁노을이 깔리기 시작할 무렵, 넓은 평야와 완만한 구릉으로 둘러싸인 국경 마을 그레인트힐에 한 기사가 말을 타고 들어섰다. 카스텔리온 왕국의 상징인 은빛 검이 새겨진 망토가 살랑이며 그려내는 잔물결이, 바람에 흔들리는 가을밀밭과 묘하게 어우러져 있었다. 아직은 젊고 앳된 기사 이름은 에반이었다. 그는 갓 임관한 신참 기사로, 북부 국경 지대를 순찰하라는 명을 받고 이곳에 첫 발을 내디딘 참이었다.

마을 입구는 날이 저물어 가는데도 의외로 평온해 보였다. 돌로 쌓은 낮은 담장들 사이로 소박한 초가집들이 늘어서 있고, 흙길을 따라 이어지는 목책 너머로는 멀리 발데론 제국의 국경 지형이 아스라이 보였다. 그레인트힐은 눈에 띄게 화려한 곳은 아니었지만, 오래전부터 국경을 지켜온 나람의 질서와 자부심이 엿보였다. 에반은 말에서 내려 근처 마구간으로 말을 맡기며 일단 하룻밤 편히 묵을 곳을 찾고자 주변을 살폈다.

그때 광장 가장자리, 마을 사람들이 손질한 짐승 가죽과 고기를 건조해 두는 작은 장터에서 경쾌하게 움직이는 젊은 여성을 발견했다. 그녀는 등에는 잘 관리된 장궁을 메고, 허리춤엔 짧은 사냥용 단검을 찬 상태로 사냥감을 가공 중이었다. 시선이 마주치자 그녀가 먼저 말을 건넸다. “처음 보는 분이네요. 기사님이신가요?” 그녀의 이름은 레이나로, 어려서부터 그레인트힐 인근 숲을 누비며 사냥 실력을 키웠다고 했다. 에반이 국경 순찰을 맡은 새내기 기사임을 알게 된 레이나는 가볍게 웃으며 “이 마을이 어떤 곳인지 궁금하면 뭐든 물어보라”는 말과 함께 여관을 알려주었다.

여관은 ‘황혼의 등불’이라는 낡고 소박한 건물이었다. 얇은 나무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서자, 저녁 식사를 위해 모여 있는 마을 사람들이 몇몇 보였고, 한구석 테이블에는 조금 색다른 인물이 앉아 있었다. 약간은 험클어진 머리칼, 긴 로브 차림의 중년 남성이 낡은 마법 서적에 정신이 팔려 있

었다. 바로 베르나스 공화국 출신의 마법사 벨라몬트였다. 그는 오래된 고대 문헌과 유물을 조사하려고 대륙 전역을 떠돌던 중, 조금이라도 새로운 정보를 얻기 위해 이 작은 마을에 들렀다고 했다. 에반은 벨라몬트와 잠시 대화를 나누었는데, 의외로 과묵하되 호기심이 많은 그 마법사는 “고대 신들이 남겼다는 성물이나 옛 전쟁의 흔적을 추적하는 게 내 소일거리”라며 실없는 농담처럼 이야기했다. 에반은 조금 황당해하면서도, 어딘지 남다른 열정을 가진 인물처럼 보이는 그를 흥미롭게 여겼다.

그날 밤은 해가 완전히 넘어가고, 여관 여기저기에 희미한 등불이 하나둘씩 켜질 무렵까지도 별다른 소란이 없었다. 에반은 “별로 위험한 기색이 없는 마을이잖아”라는 생각과 함께 편안히 잠을 청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러다 문득, 바깥에서 날카로운 비명 같은 소리가 들려왔다. 마을 외곽 쪽에서 시작된 고함과 함께 시뻘건 불빛이 일순 간 창문 틈새로 비쳐들었다. 에반이 재빨리 밖으로 나서자, 레이나 역시 장궁을 들고 뛰쳐나오고 있었다. 시야 끝에는 햇불을 든 무리의 어두운 그림자가 좁은 골목을 따라 마을 안으로 번져 들어오고 있었다.

도적의 습격이라고 보기엔 이상할 정도로 조직적이었다. 눈에 띄는 방화와 고의적인 혼란 조성이 엿보였고, 이들은 민가에 불을 지르며 빠르게 이동했다. 레이나는 활을 끌어당겨 정확히 화살을 날렸고, 에반은 곧바로 검을 빼들어 도적들을 막아섰다. 그때 여관 쪽에서도 일렁이는 빛이 번쩍었다. 벨라몬트가 마법 화살을 발사해 우두머리격인 인물을 겨냥했던 것이다. 당황한 도적들이 반격하려고 했으나, 세 명이 합심해 공격하자 곧 허술한 틈이 드러났다. 특히 에반의 날카로운 검술은 막 임관했다는 게 무색할 정도로 단단했으며, 레이나는 어둠 속에서도 상대의 급소를 놓치지 않는 놀라운 사격 실력을 선보였다. 벨라몬트의 마법은 그동안 연구하던 고대 주술을 간소화한 것이라고 했는데, 의외로 큰 위력을 발휘해 도적 무리를 교란시켰다.

그레인트힐 주민들도 용감히 도왔지만, 공격자들은 칼과 활을 다루는 솜씨가 보통 수준이 아니었다. 무엇보다 그들의 움직임에는 ‘민병대 훈련을 받은 자들’ 같은 일사불란함이 배어 있었다. 마을 중앙까지 진입하던 무리가 일순 크게 동요하더니, 대장으로 보이는 인물이 쓰러졌을 때는 도적들 사이에서 크게 저항해볼 새도 없이 퇴각 명령이 떨어졌다. 어둠에 몸을 숨긴 채 빠르게 흩어지는 그들의 뒷모습을 보며 에반은 숨을 고르듯 헬멧을 벗었다. 짧은 맞닥뜨림이었지만, 확실히 이상한 습격이었다는 느낌이 강하게 들었다.

쓰러진 대장 옆에서 레이나가 발견한 것은 발데론 제국의 황금빛 태양 문양이 새겨진 금속 패용 구였고, 그의 가슴 주머니에는 “옛 신들의 유산”에 관한 간단한 지시서가 들어 있었다. 베르나스 출신 마법사 벨라몬트는 그 문장을 곧바로 알아보더니, 과거 대륙을 통일했던 발데론 제국이 신들의 성물을 다시 모으려는 음모가 있을지도 모른다고 경고했다. 에반과 레이나는 도적이라기엔 너무 조직적이었던 그들의 공격이 순수 약탈이 아니었음을 깨닫고, 긴장감에 목이 타들었다.

밤새 긴급하게 진행된 마을 주민들과의 회의에서, 에반은 국경 방어를 떠맡은 기사로서 책임을 느꼈고, 레이나는 고향인 그레인트힐을 지키기 위해 끝까지 싸우고자 했다. 벨라몬트는 고대사에 대한 개인적 연구심뿐 아니라, 만약 발데론 제국이 신들의 유산을 손에 넣어 대륙을 다시 전쟁의

소용돌이에 몰아넣으려 한다면 결코 두고 볼 수 없다는 의지를 표했다. 어두운 밤하늘 위로 시린 달빛이 떠오르고, 불과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고요했던 마을은 잔해와 화상의 흔적을 안고 힘겹게 새벽을 맞았다.

그렇게 에반, 레이나, 벨라몬트는 생각보다 훨씬 거대한 사건에 휘말렸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평범한 국경 마을에서 벌어진 기습전은 신참 기사에게 주어진 첫 임무치고는 지나치게 위태롭고 심상치 않았다. 마을을 지키기 위해 힘을 합친 세 사람은 곧 이곳을 떠나, 발데론 제국의 음모와 신들의 유산에 관한 수수께끼를 풀기 위한 여정에 나서기로 결정했다. 그레인트힐의 하늘에 펼쳐진 새벽 별빛 아래에서, 이들은 자신도 모르게 대륙의 운명을 가를 거대한 흐름에 발을 들여놓은 것이었다.

2. ACT2 첫번째 유산

새벽녘, 그레인트힐의 불타고 부서진 건물들 사이로 퍼지는 차가운 공기가 아직 식지 않은 시점에 에반과 레이나, 그리고 벨라몬트는 말에 올랐다. 마을 사람들의 염려 어린 배웅을 뒤로한 채, 이들은 북부 변경지대를 지나 실버윈드로 향하기 시작했다. 붉게 물들던 하늘은 어느덧 밝아와 서서히 청명한 빛을 되찾았고, 길가에는 전날의 싸움에서 남은 흔적들이 희미하게나마 이어져 있었다. 에반은 은빛 검 문장이 달린 망토를 여미며 다짐하듯 작게 중얼거렸고, 레이나는 마을을 지키지 못했다는 아쉬움과 더 큰 결심을 동시에 품은 채 활을 꼭 쥐었다. 벨라몬트는 이동 중에도 고대 문헌을 놓지 않으며, 발데론 제국과 신들의 유산에 관한 글귀를 일일이 확인하고 있었다.

한나절이 지나 도달한 실버윈드는 북부 국경을 지키는 중요한 요새답게 견고한 성벽과 두터운 방어 시설로 둘러싸여 있었다. 정오 무렵 햇살을 받으며 등직하게 서 있는 성문 앞에는, 왕국 병사들이 방문자들을 일일이 점검하느라 바빠 움직이는 광경이 펼쳐졌다. 에반이 기사 신분을 증명하자 병사들은 곧바로 길을 터주었고, 마중 나온 도시 관리가 세 사람을 영주 레오릭에게 안내했다. 레오릭은 젊은 나이에 불구하고 강직한 체격과 날카로운 판단력을 지닌 인물로, 에반과 동료들의 보고를 듣고 곧바로 상황의 심각성을 파악했다. 발데론 제국이 국경 곳곳에서 도적단을 사주해 신들의 유산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고 있다는 정황은 분명 중대한 문제였다. 레오릭은 수도로 긴급 전령을 보내고, 에반 일행에게 도시 주변의 여러 마을을 조사할 권한을 부여하며 "더 많은 단서를 확보해 달라"는 부탁을 전했다.

에반과 동료들은 실버윈드 근교에 있는 마을들을 차례로 탐문하며, 곳곳에서 제국의 흔적과 수상쩍은 움직임을 포착해 나갔다. 먼저 들른 엘름브룩은 완만한 구릉지에 자리 잡은 평화로운 시골 마을이었다. 오후 햇살이 따사롭게 내리쬐는 가운데 농부들은 밭일에 열중하고 있었고, 별다른 피해나 위험의 기운은 감지되지 않았다. 다음 방문지인 페어필드 역시 맑은 공기가 감도는 평야 지대 위에 자리해 있었는데, 주민들은 소문 속의 약탈자나 도적단을 직접 보지 못했다고 전했다. 하지만 두 마을 모두 "북쪽 숲 깊은 곳에서 낯선 자들의 횡불 불빛이 보인다"는 똑같은 소문을 남몰래 공유하고 있었다. 벨라몬트는 숲속에 은밀히 모여 무언가를 찾고 있는 세력이 있다면, 그 목적이 신들의 유산과 관련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추측했다.

마지막으로 세 사람이 찾은 블랙하스에 이르렀을 무렵, 태양이 어느덧 저물어가고 있었다. 그곳은 이미 처참하게 파괴된 상태였다. 검게 그을린 잔해가 매캐한 냄새를 풍기며 사방에 널려 있고, 반쯤 허물어진 헛간들 사이를 급히 숨죽여 다니는 생존자들의 모습이 눈에 띄었다. 마을 한복판에는 도적들의 습격으로 피투성이가 된 채 쓰러진 주민들이 있었고, 일부 건물 잔해 속에서는 황금빛 태양 문양이 새겨진 금속 파편이 발견됐다. 레이나는 몸을 날려 마을 외곽을 샅샅이 수색했고, 벨라몬트는 부상자들을 돌보며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묻기 시작했다. 살짝 가라앉은 목소리로 밝힌 주민들의 증언은 똑같았다. 숲과 언덕 너머에 있는 오래된 신전 유적 근처에서 도적들이 자주 목격되었으며, 그들 중 일부는 제국 병사처럼 통일된 동작을 보였다는 것이었다.

해가 저물어주자 일행은 블랙하스를 떠나 어두워진 숲을 헤치고 옛 신전이 있다는 칼리테스 유적지로 향했다. 빛 한 점 없는 바깥은 한낮의 평온함과 전혀 다른 정적과 긴장으로 가득 차 있었다. 부서진 돌기둥과 잡초가 우거진 지면을 따라 들어가자, 떨어진 햇불의 잔불이 간간이 깜박이는 모습이 보였다. 도적들의 야영지는 생각보다 체계적으로 구축되어 있었으며, 에반이 정면에서 엄호하는 사이 레이나가 원거리 지원 사격을 펼쳤다. 벨라몬트는 마법 화살과 환영 마법으로 적들을 교란하며, 뒤편에서 뭔가 더 거대한 존재가 감지된다고 경고했다.

유적의 가장 깊숙한 지하 제단으로 이어지는 통로를 지나자, 마치 누군가에게 밟힌 듯 망가져 있는 함정 장치들이 드문드문 보였다. 결국 일행은 칼리테스 신전의 한복판에서 거대한 돌 석상과 마주쳤다. 몇 구의 도적 시체가 널브러져 있고, 그들 사이에 떨어진 발데론 제국의 문양이 석상의 발치에 굴러다녔다. 돌 석상은 침입자를 적으로 간주한 듯 바닥을 내려찍으며 거센 충격파로 공격해왔다. 에반은 방패로 요격하면서 틈을 찾았고, 레이나는 석상의 움직임을 꿰뚫어 관절부를 저격했다. 벨라몬트는 돌 표면에 균열이 생길 때마다 마법을 주입해 미세하지만 치명적인 손상을 입히는 방식으로 지원했다.

치열한 전투 끝에 석상은 그대로 무너져 내려 유적 바닥을 뒤흔들었다. 동시에 제단이 열리면서 신들의 유산 중 하나인 '불굴의 반지'가 그 모습을 드러냈다. 반지에서 뿜어져 나오는 섬뜩하고 묘한 힘에 레이나는 살짝 주저했고, 벨라몬트는 벽면에 새겨진 고대 문양을 훑어보며 탄식을 내뿜었다. 에반은 제국이 이 힘을 악용하려 한다면 대륙 전체가 또다시 전쟁의 소용돌이에 빠질 것임을 직감했다. 주위를 둘러보니, 이미 도적단이 이곳을 어느 정도 뒤진 흔적도 남아 있었다. 제국이 이처럼 오래된 성물에 접근하고 있다면, 어느 곳이든 안전하지 않을 터였다.

밤이 제법 깊어 블랙하스보다 더 멀리 이동하기 어렵게 된 일행은, 재정비를 마친 뒤 아침이 되자 곧바로 실버윈드로 되돌아갔다. 영주 레오릭은 제단에서 발견한 반지와 제국의 문양을 보고, 사태가 기존에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심각하다고 여겼다. 에반은 격식에 맞춰 반지를 영주에게 맡길 것을 제안했지만, 벨라몬트는 신들의 유산을 허투루 다룰 경우 위험만 커질 수 있다고 조언했다. 레이나는 두 사람의 의견을 조율하며, 반지의 보관과 활용 방법을 어떻게 할지 고민에 잠겼다. 레오릭은 수도에 있는 왕실에게 상황을 긴급 보고하고, 에반 일행에게 추가 지원을 요청할 준비를 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렇게 실버윈드에서 다시 모인 에반, 레이나, 벨라몬트는 제국이 노리는 다른 유물의 행방과 발데론 제국의 본격적인 움직임을 더 깊이 파헤쳐 보려는 의지로 가득 차 있었다. 애초에 국경을 방어하기 위해 파견된 신참 기사와, 고향을 지키려 했던 젊은 사냥꾼, 그리고 고대 유물을 탐색하던 마법사의 우연한 동행은 이제 그들 스스로 예상치 못했던 거대한 운명의 소용돌이가 되었다. 이들은 불굴의 반지가 가져다줄 위협과 기회를 동시에 끌어안고, 제국의 그림자 밑에 숨겨진 비밀을 추적하기 위한 다음 발걸음을 내딛을 채비를 시작했다.